

○● 특 집 도서관과 독서활동

독서와 독서 지도: 왜 잘 안 될까? 혹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말이 한 동안 유행하였다. 머리로 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 실천되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고 겪는다. 정치에서 그러하고 또 자녀 교육에서도 그러하다.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앎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앎이 앎 자체로 그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앎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점이다. 앎이 피상적이라 함은 다시 두 가지로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앎이 구체적으로 너무 피상적인 앎이어서 그 앎의 실제적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앎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무엇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나 원인은 우리의 앎이 정곡을 짚어내는 바른 앎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하는 점이다.

독서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가정의 부모, 학교의 교사, 도서관의 사서 등 모든 사람들은 ‘독서가 중요하다.’,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독서를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겨 보려고 많은 노력도 기울여 왔다. 그러



노명완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nmw@korea.ac.kr

**독서나 독서 지도에 대한 우리의 앎이 부족하거나
너무 피상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나 목표에 사뭇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앞에서 앎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독서나 독서 지도에 대한 우리의 앎이 부족하거나 너무 피상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런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서와 독서지도에 대한 반성

1) 지나친 독서 환경에의 관심

지금은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자체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갖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도서관이나 별도의 도서실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 대신 각 교실의 벽 가에 학생들이 가져온 책을 잘 정리하여 두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읽힐 도서들이다.

교사는 학급의 도서부장을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읽는 과제를 내 준다. 그리고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 오게 한다. 도서부장은 이를 카드로

정리하여 누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가를 통계적으로 발표하기도 한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해 왔던 독서지도의 실상이다.

도서실이나 도서관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은 대부분 '시설갖추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책을 선정하는 일, 그런 책을 많이 구입하는 일, 구입한 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가에 꽂아놓는 일,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책이 들어왔음을 알리고 자주 도서관에 들러 책을 보게 하는 일, 때때로 독서 주간도 정하고 도서 전시회도 열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거의 반 강제로 책을 대출시키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혹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아직도 많은 학교 도서관들이나 교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독서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독서인증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위의 여러 독서 권장 활동들은 그 대부분이 독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온 방안들이다. 시설을 갖추고, 읽게 하고, 사

**학생들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판도 하면서 이를 자신의 기존 지식 체계에 포함시켜
한 단계 상향된 새로운 지식 체계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후 점검하면, 그것이 독서지도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학생들의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런 독서지도는 '학생들의 손에 책을'이라는 표어로 대변할 만한 운동 차원의 독서지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일과 같은 것이다. 필요한 것은 말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을 더욱 살찌고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물을 먹게 하는 방법이나, 그 먹은 물이 말의 건강으로 바뀌게 하는 일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독서지도를 독서 지도가 아닌 '독서 환경'의 조성으로 보는 것이다.

독서는 학생들에게 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책을 보는 '관람자'가 아니라 읽는 '독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책을 만들어 내는 '편찬자'까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판도 하면서 이를 자신의 기존 지식 체계에 포함시켜 한 단계 상향된 새로운 지식 체계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독서

만이 감상의 독서, 내면화의 독서, 가치화의 독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독서는 지식과 정보 그 자체를 다루는 지적 작용만의 독서가 아니라, 자신을 가꾸어 가는 변신과 성장의 독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독서는 개별 지식의 획득을 통해 자신의 전체 지식 체계의 구조적 증진을 꾀하고, 더 나아가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가치와 심미를 확장시켜 가는 독서이다.

우리는 독서 과정을 사뭇 이해의 과정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물론 독서는 글을 읽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책에 적힌 글을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래서 독서는 이해의 과정이 된다. 그런데 이 이해의 과정에는 '스키마(schema)'라 부르는 독자의 기존 지식이나 태도 또는 가치관 등이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판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점을 값지게 사서, 독서 이론에서는 독서 과정을 책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상향식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글 내용

을 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상호 작용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책의 내용과 독자의 기존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독서 과정에서는 읽는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일보다는 이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태도, 가치관 등을 능동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즉 ‘책읽기’ 보다는 책 내용에 대한 능동적 또는 비판적 ‘생각하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는 독서를 이해하기 과정을 거쳐 표현하기 과정으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이해의 과정을 1차적 지식 생산이라 한다면, 읽은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으로 만들어 내는 표현 과정은 2차적 지식 생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기말에 제출하는 리포트 작성 과정이 바로 이 2차적 지식 생산의 창조적 과정이다.

2. ‘읽기-이야기하기-쓰기’의 종합적 언어활동중심 독서지도 접근

책을 읽고 그 지식과 정보를 나의 지식과 정보로 변형시키는 이해 과정도 중요한 독서 과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독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태도’와 ‘가치’까지 바꾸어

가는 독서는 읽은 글 내용에 자신의 기존 스키마를 접목시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독서의 2차적 과정에서 일어난다. 여기서는 이 2차적 독서 과정의 한 모형으로 ‘읽기-이야기하기-쓰기(reading-talking-writing)’의 종합적 언어 활동 중심 독서지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¹⁾ 이 모형은 독서지도 모형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수업 모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 모형은 최근 미국에서 매우 활발히 연구 보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 과정과 절차 및 효과를 보고한 일²⁾이 있는 ‘모듬 독서 활동(Book Club Activities)’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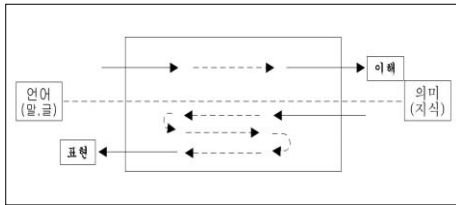
이 글에서 제안하는 ‘읽기-이야기하기-쓰기’ 모형 속에는 여러 가지 학습의 원리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이 모형은 학생 언어(듣기를 포함하는 말하기, 그리고 읽기와 쓰기) 활동 중심의 모형이다. 둘째, 이 모형에서 학생들은 글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글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얇 즉 스키마를 총동원하여 활용한다. 셋째, 이 모형에서는 학습 과정의 두 줄기인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를 적극 활용한다. 그래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상호 보완적인 학습을 하도록 한다. 넷째, 이 모형에서 학생들은 자

1) 노명완, 이차숙, 문식성 연구. 박이정, 2002. (특히 192쪽 이하의 내용)

2) 김라연, 모듬 독서 활동에서의 독서 행동 변화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신의 생각에 글의 내용, 그리고 글 내용과 관련한 다른 학생의 생각까지 모두 통합하는 지식의 대통합 활동을 한다.

‘읽기-이야기하기-쓰기’ 모형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독서(읽기)는 글을 읽고 ‘이해’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쓰기(말하기 포함)는 자신의 지식, 정보, 생각, 느낌 등을 언어로 ‘표현’ 하는 과정이다. 이 두 과정 즉 이해 과정과 표현 과정은 모두 지식 생산의 과정이다. 이해도 지식 생산의 과정(사람들은 글을 읽고 몰랐던 지식을 얻는다.)이고, 표현도 지식 생산의 과정(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낸다.)이다. 위의 그림은 이 두 과정 즉 이해 과정과 표현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지식 생산의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는 이 어려움을 점선으로 나타냈다. 그런데 표현 과정이 구불구불한 곡선을 보이는데 비해, 이해 과정은 직선으로 그려졌다. 이는, 표현(말하기나 쓰기) 과정이 이해(듣기나 읽기) 과정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실제의 일상 경험으로 보아도 읽기나 독서는 그리 힘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에 비해 말하기나 쓰기는 상당히 어렵다. 읽은 글 내용을 되말하기도 어렵고, 자기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쓰기도 어렵다. 바로 이 어려움이 ‘사고’의 연습이다. 그리고 그 표현적 사고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사고 연습은 더 깊고 넓게 일어나는 것이다. ‘읽기-이야기하기-쓰기’ 모형이 사고 모형으로 효율적임은 이 모형 속에 이해 과정과 표현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원리들에 입각한 위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읽기 전에 말하기 :** 글을 읽기 전에 읽고자 하는 글의 제목을 본다. 학교 수업 이라면 새 단원의 제목을 본다. 그리고 글 제목이나 단원 제목으로 미루어 글 속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말해 본다. 우선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메모하면서 발표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다. 이 글을 쓴 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자신이 글을 쓰는 필자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을 발표해 보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글 제목 또는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태도를 먼저 확인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것과 비교하고, 이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주해 본 후에 다른 전문인의 것을
읽으면서 배움을 얻는 것이다. 이런 배움이 진정한 배움이며,
배움의 기쁨은 바로 이런 비교에서 오는 것이다.**

터 학습을 얻기도 한다. 그런 후 필자의 입장이 되어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쓸 경우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해 본다. 아이디어 수준, 구체적인 내용 수준,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 아예 생각조차 없는 부분 등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앎을 점검하고, 다른 학생의 생각과 비교도 해 보고, 그 결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도 확인해 본다.

중요한 것은 글을 읽기 전에 글 주제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능동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이다.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다. 그래서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읽는 글의 내용을 곧바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일반적인 독서와는 크게 다른 매우 능동적인 사고 활동이다.

*** 읽고 말하기 :** 글을 읽어간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려 낸다. 그러면서 '읽기 전 말하기' 과정에서 생각해 냈던 자기의 생각이나 친구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을 글에서 확인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내용도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읽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글 옆에 메모도 한다. 나중에 더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나 내용도 메모한다.

이런 읽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글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서 둘 사이의 일치에서 오는 희열감도 맛보고, 자신의 생각이 부족함을 깨닫기도 한다.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글을 쓴 전문가의 전문적 안목이나 높은 식견을 확인하고 놀라기도 해 본다. 바로 이런 과정이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주해 본 후에 다른 전문인의 것을 읽으면서 배움을 얻는 것이다. 이런 배움이 진정한 배움이며, 배움의 기쁨은 바로 이런 비교에서 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학생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글 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글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 교사의 안내 :** 학생이 글을 읽는 중간 중간에 또는 다 읽고 난 후에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개입적 안내 활동을 한다. 즉 심리학자 비고츠키가 이야기한 근접발달영역 내에서의 ‘비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래에 학생의 사고를 더 깊고 넓게 그리고 자신과 인간 사회에 결부시켜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사의 안내적 조언을 정리해 본다.

-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런 일이나 이와 유사한 일을 주변에서 언제 본 일이 있는가? 봤다면 언제 어떤 것을 보았나?
- 이런 일이 너 자신에게도 있었나? 그때 너는 어떻게 하였나?
-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나?
-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
-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이야기 속의 내용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보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너는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왜?
- 이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의 내용과 그 주인공들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점에서?
-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점은 더 없는가? 어떤 점이 그러한가?

- 이 이야기 속의 세상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가? 왜? 어떤 점에서?
- 이야기 속의 사람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친구로 사귀고 싶은가?
-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기분이 어떠한가?

이상의 질문들은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또는 중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안내적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은 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독서를 벗어나, 글 내용을 자신과 주변 가족이나 사회에 관련지어 새롭게 해석해 보는 ‘사고 확장적 질문’이다.

*** 읽은 후 활동(정리하고 쓰기) :** 글을 다 읽고, 선생님을 포함하여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도 다 끝났다면, 이제는 읽은 글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내용 정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하나는 읽은 글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그 줄거리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글을 읽고 난 후에 하는 이런 되짚어보기는 일종의 복습이다. 이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정리이다. 이때의 정리는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개별적인 정보들의 구조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래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것이다. 읽은 후에 하는 이런 내용 정리는 내용 기억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 제안한 ‘읽기-이야기하기-쓰기’ 독서지도 모형은
바로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의 학술적 재현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

읽은 후 활동의 두 번째 활동은 글을 한 편 써 보는 것이다. 글 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써도 되고, 조금 바꾸어 써도 된다. 이때 글에 나온 내용 중 중심 주제나 핵심 내용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키는 일이다. 이런 쓰기 활동은 이야기(story) 읽기에서도 가능하고,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과학이나 사회에 대한 설명문 읽기에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학에 관한 글을 읽으며 그 속에서 과학적 사실만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쓰기 부분에서는 이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쓰기는 개인적 감상을 쓰는 수필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학술적 정보도 담은 중수필도 포함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런 변화야말로 가장 혁신적인 변화일 것이다. 위의 ‘읽기-이야기하기-쓰기’ 모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한 모형이다.

그리고 이 모형은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어 온 모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렇게 친숙한 일상적 모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이 모형의 활용이 지금까지의 독서 지도에 대한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것을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생활에 실현되지 못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독서지도도 사실은 우리가 유치원등이일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받아왔던 매우 친숙한 것이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글을 읽게 하거나 또는 읽어주시고 반드시 읽은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셨다. 바로 이것이 독서의 내면화요 깊이 있는 사고 교육이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읽기-이야기하기-쓰기’ 독서지도 모형은 바로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의 학술적 재현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 (㉞)